전생 신드롬 ❧

"나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생에 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전생록(前生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 "지금의 형수는 전생에 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형수를 보면 나는 애틋한 생각에 젖어들곤 합니다."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픈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점에서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를 바꾸어 영원을 산다는 윤회설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 힌두교 등 동양종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윤회사상(혹은 환생)은 글자 그대로 생명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이론입니다. 즉, 한 생명체가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 삶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의 윤회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業, karma)을 쌓느냐에 따라 다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인과응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수 년 전의 외화 '리틀 붓다'에 이어 최근에는 방화 '은행나무 침대'가 윤회를 소재로 흥행에 성공했고, '천녀유혼', '몽중인', '진용' 등의 홍콩-중국계 작품들도 윤회사상의 전파에 단단한 일조를 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불황 속에서도 드물게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이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고, 더 나아가 노래와 드라마, 광고에까지도 윤회사상을 부추기는 내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여 김영우(40세)라는 신경정신과 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최면술로 사람들의 전생을 기억하게 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소위 '전생요법'을 실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치료받은 환자만도 1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주로 뉴에이지 관련 서적을 펴내고 있는 정신세계사에서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이라는 책에 그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최면유도 테입까지 끼워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생의 체험에 몰입하도록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자 자신이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습득한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상상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 당나라 시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최면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특별한 경험을 예상하거나 특정인의 삶을 상상하여 이를 자신의 전생의 삶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수 전생 체험자들의 진술이 실제적인 역사자료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험자가 전생의 상태에 몰입할 때 어둠의 영들이 개입하여 인위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우 씨가 원종진이란 26세 청년을 대상으로 12회 정도의 퇴행실험을 했을 때, 그는 전생의 체험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구와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한 예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예언을 할 때 체험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제3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관해 원종진은 "또렷

http://file.onnuritv.com

하게 들리며, 말과 함께 가슴으로도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텔레파시라고나 할까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존재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체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가 귀신들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귀신들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예언이란 전생요법을 핑계삼아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 지배하는 귀신들림의 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최후에 정복될 적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타락의 일차 결과이기도 합니다. -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따라서 사망의 저주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망의 저주라는 궁극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복음도,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윤회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경의 대주제에 대해 사탄이 만들어놓은 교묘한 사상적, 종교적 올가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손종태/기독교문화 사역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새벽나라」제공
http://isena.com/

http://file.onnuritv.com